

주말경제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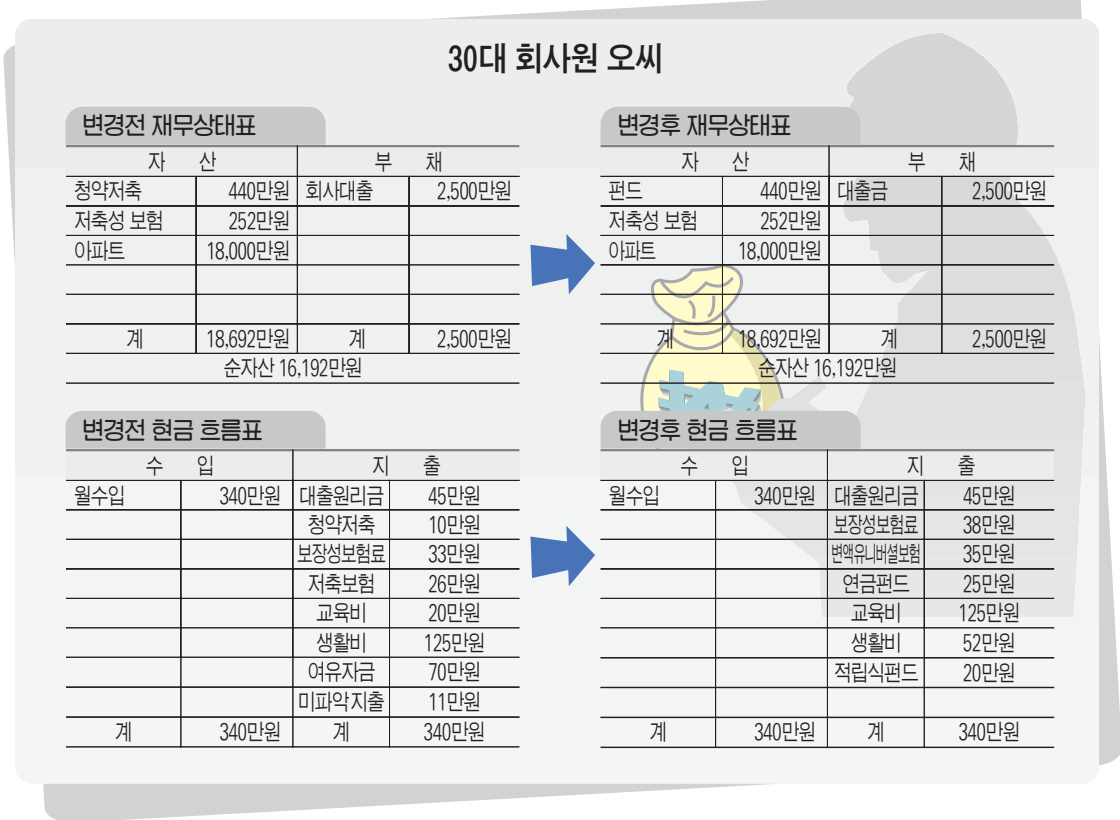
■30대 직장인, 노후문제 등 재무설계는...

자녀 교육비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Q 38세의 회사원입니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4살·2살배기 아이가 있습니다. 월급은 340만원이며, 자산으로는 시가 1억8천만원짜리 34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시 부모님이 8천만원을 지원해주셨고 회사에서 3년 분할상환으로 2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이 1년 지났습니다. 노후를 위해 월 25만원 정도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아이들 교육비로 10만원씩 펀드에 들고 있습니다. 부부중신보험과 저축성보험 등 보험료로 월 58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적정한지 묻고 싶고 청약저축은 올해까지만 넣고 펀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4천만원,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1년동안 저축액은 1천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심하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으로 부를 늘려나가는 것보다 투자형 상품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저축·보험·투자를 명확히 하라=오씨는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해 있다. 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청약저축과 보

필요가 있다. 가령,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자녀의 대학교육자금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투자형 상품중에서 장기상품으로 리모델링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재무적 목표의 준비기간에 따라서 3년 이하는 저축을, 3년 이상은 투자상품을 그 중에서 5년 이상은 장기 투자상품으로 구분해 기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자녀의 교육비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자녀당 4년제 대학 순수 교육비는 3천200만원으로 오씨의 경우 투자자를 16년, 18년후에



막연한 저축·투자 보다 목표를 분명히 연금상품으로 변액연금·연금펀드 좋아

협상품이 주를 이룬다. 이는 주변의 권유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제부터라도 목표지점을 확인,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해보고 이에 따른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저축·보험·투자는 각 상품별로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이 있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씨는 자녀를 위한 저축성 보험 및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다. 이를 구분할

대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때 약 1억7천만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매월 36만원을 8%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에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8%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 드문만큼 불입액을 늘리거나 펀드 등 투자상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오씨에게 투자형 상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장기투자를 한다면 고수익이 가능한 펀드 가입을 고려할 때다.

다만 단기적으로 수익이 높은 펀드를 찾거나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갈아가는 펀드만을 선택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나 전반적인 시장악화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개인의 재무적 상황에 맞는 상품을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선택해야 하며 적어도 단기적인 수익률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기간수익률, 펀드의 규모, 투자대상, 환매수수료 정도는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정의 보장성보험의 규모는 급여의 10%정도가 적정하다. 보장성보험에는 저축성보험이나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씨의 경우 보장성보험은 부모님의 보험료와 저축성보험료를 제외하고 약 16만원정도로 아이들의 의료실비를 위한 손보상품 선택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상품은 전문가를 통해 리모델링해 볼 것을 권한다. ◇연금상품으로 변액연금과 연금펀드 권함=연금상품에 25만원정도 가입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세제적 연금저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맞는 상품에는 연금펀드가 있다. 연금저축과 같은 세제효과가 있으며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주식 편입 비율에 따른 다양한 펀드가 있다. 저렴한 비용과 세제혜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으로 연금저축을 생각했다면 한번쯤 검토해 볼만하다. 다만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10년이상

납입하고 거치했다가 꼭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도에 환매할 경우 중과세가 부과되며 연금수령시 금리가 낮지만 5.5% 연금소득에 따른 과세가 발생하므로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만 지나면 비과세 되는 변액연금도 유동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미만인 혼합형펀드 성격의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이다. 오씨처럼 연금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은 30대 직장인의 경우 유동성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의 저축관도 무시할 수 없다. 중도에 환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적은 금액을 연금펀드에 가입하고 부정기적으로 보너스나 여유자금이 생길 때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 청약저축은 주택을 마련한만큼 펀드로 전환하는 것은 좋다. 또 긴급히 필요한 돈에 대비해 유동성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긴급자금은 통상 3~6개월분의 생활비가 적정하며 급여이체가 되는 주거래은행을 정해 MMF 등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나 단기 확정금리 상품이 바람직하다. 급여소득을 기초로 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리=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어린이 손해보험
중복가입 피하라

어린이를 위한 손해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중복 가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장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식중독·골절 및 화상진단 등의 정액보상 부문은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보험사에서 50%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또 보상이 안되는 항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어린이 손해보험에서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인 경우 입원치료는 보상이 되지만 통원치료는 보상되지 않는다. 선천적인 이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전 가입과 출산후 가입이 다르다. 즉 선천성질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산후가 아닌 태아때 가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선천성질환에는 심장관막증, 항문폐쇄, 구순구개열(언청이) 등이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이변주 재테크 자문단>

◇이변주 상담자: 김정관CFP(광주은행), 안병인AFP(미래에셋생명)
 ◇재산리모델링 신청방법(신청서 연락처 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방법: chy69016@naver.com, bungy@kwangju.co.kr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 062)524-4187, 062)222-4918
 ▲'다음카페'를 통한 신청방법: www.cafe.daum.net/forum(광주FP포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1위
8월 1일 꼭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227-8003 / 229-8199 / 921-030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361-8111 / 520-8111
문제풀이 특선(오답정리+답변문서제공)(7월, 8월) 기본서 특별반
개강 8월 1일 국배무원
공인중개사전문원 361-8111
전국합격률 1위 520-8111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전남고시학원
7.30(월), 8.4(토), 8.6(월)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1140631222-5105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1명수원생(4명기)
광주개서대학교 TEL: 950-1554, 2525, HP: 911-614-6166